

2026. 02. 10. 07:14

정신없이 잤습니다. 샤워하고 나서 잠이 누워있었는데 새벽이 되었더군요. 바로 일어나서 출근 했습니다.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 저녁에 잠이 움직이다 그대로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나저나 오늘은 복모님이 입원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이것저것 검사를 시켜드리고 싶는데 당신들은 이 검사는 안한다 저 검사는 싫다 이러며 자꾸 안하려고 하셔서 힘들었습니다. 특히 스케줄을 2박 3일로 잡았는데, 1박 2일로 하면 안되냐고 자꾸 그러셔서 곤란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의 100% 응급절제로 금식할 것인데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고 다음에는 더 조절을 해봐야 겠죠.

오늘은 카드값이 나가는 날입니다. 어제 저녁에 큰 돈을 계좌에 송금해 두었습니다. ... 많이 썼네요. 아껴 살아야 합니다. 더 별 생각을 하지 말고 입을 즐이라고 했지요. 아껴야 어떻게든 됩니다. 거기다 당분간은 세금을 내야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몇 가지 장비를 더 갖고 싶은 것이 있지만 당분간 타이밍을 살펴야겠지요.

지금 갖고 싶은 것으로는, UHF Amp와 IC-9700이 있네요. 전부 하면 35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50만원 정도 더 투자하면 5.66MHz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IC-905도 있지만 쓸일이 없으니 사양하겠습니다. 애초에 지평선을 넘지 못하는 장비가 제게 무슨 장점이 있을지. 저는 옛날 사람이니 HF/VHF/UHF에서나 살려고요. 그것만 해도 전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오전에 복모님이 입원해서 좀 바빴습니다. 생각보다 병실이 없어 입원을 늦게 했고 그래서 검사가 꼬였습니다. 다행히 PA들이 해결을 해 줬네요. 오늘 PFT와 CT 검사가 있는데 별 탈없이 진행하면 좋겠네요.

사실 실제로 가장 필요한 것은 내시경인데, 내시경은 내일 오후입니다.  
오전에 장을 비우고 오후에 내시경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용종이  
많아 이번에도 많이 나올것 같고 어머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검사나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좀 있다 두레쥬르에서 맛난것이  
나 좀 사서 병동에 갖다줘야겠습니다. 그래도 병동에 부모님을 맡긴  
것이니까요. 날개포장의 무엇인가가 좋겠네요. 한 5만원은 써야겠지요.  
아까는 탈장광고를 만드는 문제로 잠시 머리를 굴렸습니다. 블로그  
글도 만들어야 하고 (제가 안하지만) 동영상 관련 준비도 했습니다.  
오늘도 대충 하루를 보낼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오후 시인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정신 없네요. 이제는 좀 누워있고  
싶습니다.

오후에는 ... 아닙니다. 우선 쉬어야겠습

